



과학과 예언의 합류, 초대형 전염병은 이미 활시위에 걸려있다

뒤숭숭한 2020년 경자년은 이미 저물고, 인류는 곧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신축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현실 속 전염병의 흐름과 과학자의 경고, 또는 고금중외 예언의 경고를 막론하고, 모두 인류가 곧 맞이하게 될 더욱 큰 규모의 전염병을 일치하게 가리키고 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은, 대전염병이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전염병 형세와 각종 예언의 계시로부터, 전염병의 추세를 똑똑히 보고, 또 과학과 예언의 합류점에서, 함께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1 변이 병독은 매우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변형은 이미 “통제를 잃다”

2020년 12월 21일, 영국 보건부 장관 맷 핸콕은, 코로나 병독(무한폐렴)은 이미 변이를 일으켰고, 이미 “통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비록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영국에 대해 여행금지령을 내

렸지만, 여전히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잇따라 변이 병독이 발견됐다. 이런 국가에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통 대국, 북유럽의 모든 국가, 아시아의 중국, 일본, 인도, 홍콩 등, 대양주의 호주, 뉴질랜드, 북미의 미국, 캐나다, 남미의 브라질, 칠레 등이 포함된다.

● **영국 내의 변이 병독의 전파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영국은, 병독이 2020년 12월 중하순에 급격히 기승을 부린 뒤, 1월 5일까지 끊임없이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에선 이미 8일 연속 하루 동안 5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최신통계에 따르면 매 50명 영국인, 매 30명 런던인에 변이병독 감염자 한사람이 있다.

우리는 비교해 보자: 2020년 1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병독(무한 폐렴)을 발견했을 때부터 7월까지, 이 6개월간, 영국의 누적 감염 확진자 수는 30만 1천 명이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이 6일간, 영국의 누적 감염자는 31만 1천 명의 높은 수치에 달했다.

● **독일의 감염자 사망자 수 폭증**

2020년 말, 독일의 코로나 병독 사망자 수는 폭증하는 추

세를 보였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독일에서 코로나병독 발생 이후 사망율이 가장 높은 달이며, 1만 6000명 이상이 이번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그중, 12월 29일, 감염증으로 인한 독일의 하루 사망자 수는 1100 사례를 넘었고, 하루 사망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 비교해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이 4개월간의 누적 사망자 수는 단 1000례였다.

샌드라 시제크 프랑크푸르트대 병독학과 교수 시제크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빨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젊은 층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 되었고, 중증 비율이 높다**

2020년 12월 하순, 영국 정부 과학문의팀 팀원 닐 퍼거슨은 변이된 코로나 병독은 15세 이하에 더 많이 감염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장관 즈웰리 음키제는 변이 독종으로 인한 2차 감염으로 젊은 층이 감염되고 중증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코로나 병독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 2면에 계속

41면의 계속

12월 26일, 미국 뉴욕 북부의 4살짜리 어린이 자비에 해리스가 코로나 병독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그는 현지에서 코로나 병독으로 사망한 최연소자가 되었다.

12월 28일, 일본 매체는 무한 폐렴으로 죽은 첫 번째 국회의원 하타 유이치로에 대해 보고했는데, 겨우 53세였다. 그는 12월 24일 감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 검사를 하기도 전에, 27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12월 29일, 한 젊은 미국의원 루크 레트로가 코로나 병독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는 41세밖에 되지 않았고, 41세의 나이로 생전에 당선돼 취임선서를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2 과학계와 예언계가 동시에 미리 경고, 더욱 큰 전염병은 뒤에 온다

●과학계에서 온 경고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 마이크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전염병은 가장 큰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다음의 대전염병은 혹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으며……”

미국 “알레르기과 전염병 연구원” 주임 폭시는 앞으로 코로나 병독의 기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의 경험을 찾다

1918년 봄, 스페인독감이 막 발생했을 때, 보통 유행성감기와 별로 다를 바 없었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해 가을과 겨울에, 변이된 후의 2차 독감이 역습했을 때 맹독성 병독형식으로 나타났고, 전염성이 급상승했으며, 짧은 몇 개월 내에 세계 각지에 널리 퍼졌다. 치사율도 폭증했고, 환자가 짧은 시간(몇 시간에서 며칠) 내에 사망했다.

●고금, 중 서방 예언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치하며, 더욱 큰 전염병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천백년 이래 광범위하게 유전되었던 ‘황제지모경(黃帝地母經)’은 2020년 경자년에 대해, “삼동을 보면 산에 묘지가 일어나리라 [更看三冬里, 山头起墓田]”을 제기했다. 이것은 아마 경자년 말에, 아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에 대해, ‘지모경’은 “사람을 절반 남긴다” [人民留一半]라고 직설했는데, 처참한 정도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제세기(諸世紀)’는 16세기 프랑스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의 명작이다. 예전에 프랑스대혁명, 나폴레옹 발흥기, 히틀러와 나치의 출현, 맑스와 공산주의가 인류에 대해 감행한 거리낌 없는 잔학한 짓, 911 테러 등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했다. 예언의 정확율은 99%에 달했다. 2021년 전염병에 대해, ‘제세기’에서 “젊은이를 얼마 남기지 못하며, 시작되자마자 절반이 죽는다 [留不下多少年轻人, 一开始就死一半]”고 말했다.

2019년 8월 무한 폐렴을 정확하게 예언한 인도 천재 소년 아비야 아난드는, 2020년 11월에 다시 미래에 대해 새로운 예언을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각종 대재난(유행병, 무한 폐렴 2차 전염병, 백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 경제 붕괴 등등)이 곧 닥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다

수 재난은 2021년 2월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의 현상교사인 데이토 앤서니 찬은 2021년에 대해서 무한 폐렴이 번이를 일으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병독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기존 병독과 함께 인간 생명에 이중의 위협이 될 것으로 인정했다.

3 과학과 예언의 합류점,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나타난다

●과학적 발견이 전염병을 피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전 세계 코로나 병독(무한폐렴) 빅데이터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은 마치 눈이 있는 것 같았고, 전 세계에 전염병 확산 경로에서 보면, 언제나 중공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 도시, 조직과 개인을 따라 줄곧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공일수록, 전염병은 더욱 심각했다.

중국 내 일대일로(一帶一路) 글로벌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뛰어든 이탈리아는 코로나 병독 폭발 이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란은 중국공산당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침투 전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이후 이란 감

▶3면에 계속



◀ 2면의 계속

염율과 사망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공의 침투가 가장 심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두 개의 주가 됐다. 이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형태로 친공(親共) 하면서 현재 코로나병독의 늪에 빠져 있다. 이에 비해 반공(反共)인 대만은 대륙과 이웃하고 있지만, 어떤 금지령도 내리지 않았고, 경제를 멈추지도 않았지만 도리어 감염율과 사망율을 아주 낮게 유지하고 있어 세계 역병 방지 모범으로 됐다.

중공은 감염사망 인수와 사망자의 구체 정보를 온갖 방법을 다해 은폐했으나 모 회사 내부의 2020년 2월분의 사망자명단 통계에서 보면, 이 회사에서 중공병독으로 죽은 사람들 중, 중공 당원의 비율은 88%에 달했다. 2020년 3월, 사이트에서 널리 전해진 한 부의 내부명단이 보여주다시피, 무한 폐렴으로 죽은 317명 중에, 중공당원은 200여 명에 달했다. 중국인 100명당 당원 수가 평균 6, 7명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있는데, 이 중 내부 사망통계를 보면 코로나병독의 ‘정치적 모습’을 지향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11월 11일사이 코로나병독의 청색주(친공, 사회주의를 열종하는 사람)에서의 치사율은 적색주(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전통가치 이념을 중시)보다 장기적으로 1.2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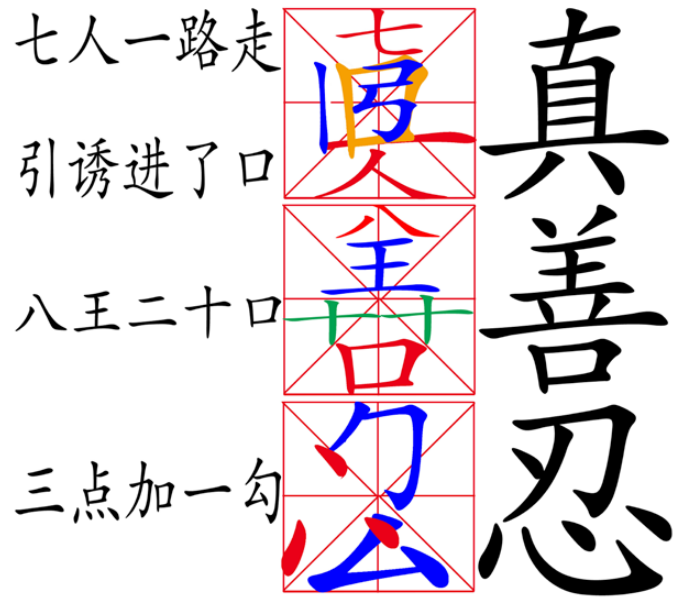
기왕 전염병이 중공과 친공산주의자들을 향해 온 만큼, 그럼 중공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을 피하는 관건이다. 2021년 1월초까지, 이미 3억 7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삼퇴’(중공 및 그 부속조직에서 탈퇴)를 했다.

● 고금의 저명한 예언자의 조언

중화 전통문화에서 사람들은 전염병은 역신들이 가져온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청산과 징벌이라고 여겼다. 서양의 문화(성경)는 전염병을 인간의 배신에 대한 신의 징벌로 본다. 그래서 중서방 전통문화는 모두 전염병은 눈이 달렸다고 여긴다. 현대 과학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것과 맞물려 있다.

노스트라다무스(諾查丹瑪斯)는 예언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공산당은 인간세상에서의 마귀의 대리인이고, 대재난은 신이 인간세상에서 악인 및 신을 믿지 않고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사람들에게 겁난을 피하는 관건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피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명나라 개국 재상 유백온은 ‘산서 태백산 유백온비기(陝西太白山劉伯溫碑記)’에서 정확하게 중공병독이 발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언했다. “역병이 언제 닥칠지를 묻는다면, 오직 겨울부터 열 달 동안을 보라. [若問瘟疫何時現, 但看九冬十月間]” (2019년 겨울, 음력 10월은 양력 11월에 대응한다) 또 글자 수수께끼의 방식으로, 겁난 중에서 목숨을 건질 호신부도 알려주었다. “일곱 명이 한 길을 가며(七人一路走), 구멍에 들어가 있고(引誘進了口)” [진(眞), 고대 ‘진’자 표기법], “여덟 명의 왕과 20개의 구멍(八王二十口)” [선(善)], “세 개의 점에 한 획을 긋고(三點



加一勾)” [인(忍)].

모든 예언과 경고의 핵심은 모두 신을 믿고 선(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시조 맑스는 사탄 신도이고 중공은 가장 신을 반대하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신론’을 따르게 한다. 때문에 마귀에게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중공과 멀리해 빨리 “삼퇴”해야 한다.

중공이 전염병정보를 엄격히 공제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변이 병독“통제불능”에 대해 충분한 중시를 못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친구들은 중공 무신론에 세뇌당해, 혹시 예언과 신앙은 과학 범주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으며, ‘미신’이라는 모자를 씌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미혹되어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사실, 예언과 과학은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많은 예언이 펼쳐 보인 것은 오랜 지혜이고, 현대 과학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정도다.

현재, 현실형세와 과학자의 경고든지, 아니면 고금중외 예언의 경고를 막론하고, 모두 경자년(2020)과 신축년(2021)의 거대한 전환점에 합류되어 있으며 더욱 큰 규모의 전염병이 곧 오게 됨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진실한 감염자 수는 더 높아 형대 (邢台) 에서 다급히 5000 명의 방창 (方舱) 병원을 건설하다



2020년의 무한 방창 병원 촬영. 오늘날 방창병원은 또 형대에 재현했다.

1월 11일, 석가장시에서 또 39례 확진자가 증가됐는데, 그중 26례는 무증상 감염이었다. 12일까지 하북성에는 모두 40개 중위험구, 1개 고위험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석가장 역병공제부문의 내부인사가 폭로한데 의하면 정부에서 공포한 수자는 실제수자 보다 비할바없이 낮다.

형대 (邢台) 에서 다급히 5000 명의 방창 (方舱) 병원 건설

석가장 방역공제부문의 직원인 왕여사는 자유 아세아 라디오 방송국에 석가장에서 매일 실제 확진자 병례는 백명을 초과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발포한 수치는 몇십명 뿐이라고 폭로했다.

왕여사는 말했다. 석가장에서 약 100공리 떨어져있는 남궁시도 아주 엄중한데 일부촌은 전촌이 격리됐다. 하지만 소식이 엄밀하게 봉쇄되었기에 그와같은 내부사람마저도 상세한 상황을 알수없다고 했다.

자유 아세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얻은 형대시 통전부 문건

에따르면 중공은 형대관할구 남궁시에 5000장이 넘는 병상을 포함한 무한 폐렴 병례수용점을 건설할 계획이다.

1월 10일, 형대시, 남궁시 통전부는 본지방 민영기업에 보낸 창의서에 남궁시는 1인용 침대, 이불, 베개, 세수용품과 의료용 쓰레기주머니 등 간단한 생활용 방역물품이 급히 5000개씩 필요하고, 2일내에 3000개 물품을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형대시 통전부인원은 자유 아세아 라디오 방송국에 역병상황이 엄중하다고 증실했다. 봉쇄때문에 외지 물품이 남궁으로 들어오기 아주 어렵기에 본지 기업에서 모집한다고 했다. “방창병원, 비슷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지의 물품은 들어오지 못하기에, 전반 물류가 모두 중단됐지요...일반적인 상황에서 외지차는 하북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통행증이 없으면 떠나지도 못합니다. 모두 봉쇄됐습니다.”

듣는 소식에 의하면 석가장

시와 형대시에서 12일부터 제2차 전체인원 핵산검측을 가동했다. 석가장과 거리가 가까운 정주, 신집, 북웅안신구도 전체인원 핵산검측을 시작했다.

북경에서 전염병이 연속 폭발해 네티즌은 시정부더러 “집체사직”하라고 호소하다

현재 북경에서 이미 성절반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을 공제할 수 없고 아울러 연병 이미 가정식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순의구역 부구장은 역병 방공회의에서 북경전염병상황이 엄중하다고 실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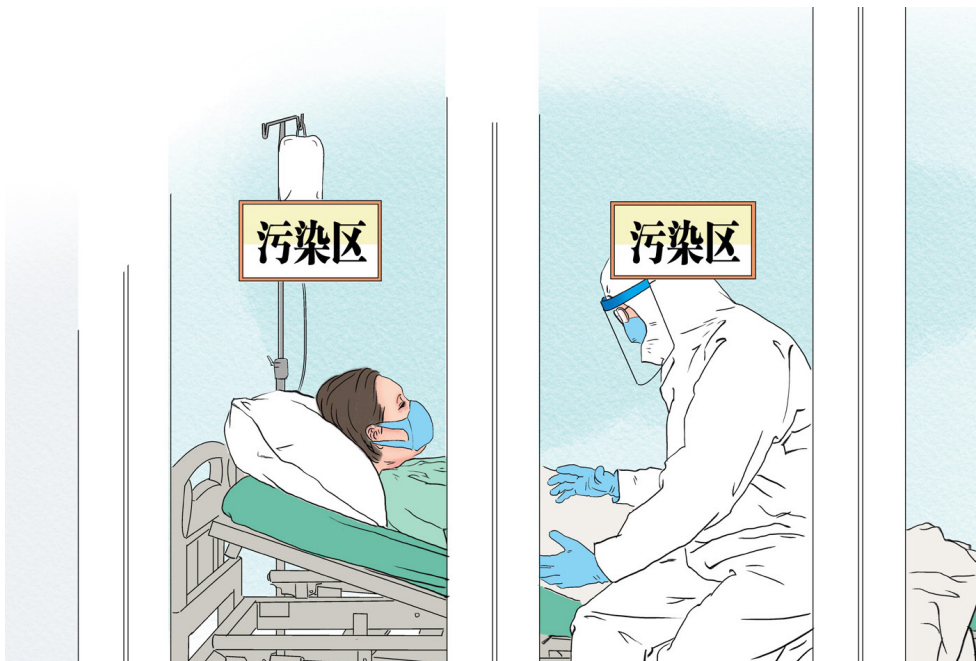
하지만 감염인수가 급속히 증가되는 동시에도 중공은 오히려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 병례에 기록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야만 확진해서 일부러 역병의 엄중성을 흐리게한다는 질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은 정부의 전염병 공제 조치에 대해 지극히 불만을 표시하고, 적지않는 네티즌은 웨이보에 댓글을 달아 울분을 토로했다. “왜 무증상은 공포하지 않는가? 무증상은 병례가 아닌가?” “무증상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정말 대단하다.” “수도의 성시관리수준이라고...설연휴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출근길에서도 또 조마조마 해야하니” “북경시 영도들이 단체로 사직할 것을 건의한다! 무슨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북경은 하북성 경내에 위치돼 역병중심에 빠졌다. 현재 적어도 9개의 중위험지구가 있

▶6면에 계속

의사는 역병기간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



나는 한 시급병원의 의사다. 나는 파룬궁수련생으로서 전염병은 중공사당의 독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태시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으로 신불을 믿는 선량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가장 먼저 전염병동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했다.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 혼자 있는 가련한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질병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환자들이 겁난을 넘기기 위해서 나는 각종 기회를 이용해 그들과 교류하고, 담화하고 진상을 말했다.

격리병동은 불편적으로 환자들의 정서는 가라앉고 두려워한다. 나는 대법의 법리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했다. 중공이 무신론을 선전해 사람들의 도덕이 나빠진 것이 전염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줬다. 특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진선인(眞·善·忍)’을 탄압했다고 알렸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고 오로지 잘못을 고쳐 선을 향하고 중공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후에 나는 또 중환자실로 옮겨갔다. 한 할머니는 마침 내가 의심 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진료받은 분이였다. 그 당시 그 할머니가 침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부축해주었기에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몹시 기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인연이 있네요.”라고 말했다. 나는 갈 때마다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늘 ‘구자진언’을 외우라고 알려줬다. 후에 그 할머니는 빨리 회복되었다.

한 환자는 아주 열심히 방역인원을 배합해 근 삼주간의 활동게로를 회억했다. 그때 질병방지인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보증했었는데 후에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그는 아주 큰 사회 여론의 압력을 받았다.

나는 퇴근후 그가 있는 확진 병실에게 중공은 정치성적을 위해 인민을 기편하고, 필요할때는 쓰다가 쓰고 나면 제거하는 일관 작법을 말하면서 진상을 말하고 그에게 ‘구자진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삼퇴’를 해줬다. 그들은 나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격했고 대

법제자의 선량함을 체험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피하면서 다가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나를 보러 왔네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후에 그들은 정말 나를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여겨 경상적으로 나하고 치료의견을 문의했다.

현지 정부 관원들은 위에서 문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시급 지정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무한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과실의 당지부 서기는 당부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 것부터 천안문 분신자살에 대해 알렸으며 마지막에 평안하게 겁난을 넘기기 위해서 삼퇴하고 평안을 보장받으라고 했다. 그는 삼퇴에 동의했다.

50여 일 동안의 일을 마치고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중공은 이른바 “불꽃입당”을 선전했다. 전선에 나선 젊은 의료진 대부분은 알바제이다. 평시 월급은 2000여원으로 불쌍할 정도이다. 사당은 이때 그들더러 이름뿐이고 실속이 없는 입당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전염병기간에 발급하는 의료보조금을 몇번이나 신청했지만 쥐꼬리만한 보조금도 결국 발급하지 않았다. 사당은 이용하고 나면 얼굴을 돌려 모른척 한다. 사당은 역병을 은폐하여,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현재는 또 파렴치하게 자신을 방역의 모범, 구세주로 선전한다.

연구 : 무한의 76% 감염자는 출원해 반년후 여전히 후유 증이 남아있다

1월 9일, 《더 란셋》 학술지에서 대륙 의학계 인사의 한부 조사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1월 7일 ~ 5월 29일 기간 무한 금은담병원에서 출원한 1733명 무한 폐렴 감염자에 대해 조사 연구했다. 환자 평균 연령은 57세이다.

연구에서 방문자중 76%가 조사때 여전히 적어도 한가지 후유증이 남아있었다. 그 중 63%는 피로하거나 근육이 무력한 감각이 있고, 26%는 수면장애가 있고, 23%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심리적 문제가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많았다.

폐부후유증 방면에서

주원기간 병세가 엄중 환자 일수록 폐기능 손상이 더 나타났다. 호흡기 치료기 착용자, 산소요법 받은자, 산소요법 받지않은자의 폐부 환기능 장애 비율은 각각 56%, 29%와 22%이다.

또 신장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다. 입원할때 신장기능이 정상적이었던 방문자중 13%이 조사때 신장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항체(抗体) 방면에서 94명 방문자는 항체검측을 완성하고, 중화(中和) 항체역가는 급성기간 입원했을때 보다 52.5% 내려갔다. 연구팀은 가능하게 재차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4면의 계속

으며, 당국은 이에 고도로 긴장해 한다.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 북경은 일전 "유사봉쇄" 조치를 실시해 여러개 철로 선은 운수를 정지했다. 동시에 하북성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공제했다. 석가장 차량번호판을 단 차량은 당산을 에돌아가야 했고 북경을 경유하거나 더욱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북성에 거주하면서 북경으로 출근하는 자는 핵산검측보고를 제출해도 북경으로 진입할 수 없다.

‘돌파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메일 tuidang@epochtimes.com 에 등록해 ‘3 퇴’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코드찍어 "삼퇴" 하기

진상 ‘분신자살’의 진상

20년전 ‘분신자살’ 사건, 대량의 증거가 표명하는데 이는 강택민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지시하여 촬영한 허점이 수두룩한 세기 사기극이다. 아래에 2가지 사례만 들겠다.



왕진둥은 분신 할 때 전신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도리어 완전하고 손상이 없었다. 한 사람이 실험해 봤는데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불을 붙힌다음 5초면 나쁜해지기 시작하고, 7초면 변형되고, 10초면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변한다. 하지만 왕진둥의 두다리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병은 청록색인 새 병과 같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초점방담 ‘분신자살’ 영상 캡처화면을 보면 : 1, 류춘링(劉春玲)의 몸에 붙은 불을 끌때 누군가 단단한 물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2-3, 류춘링은 무의식적으로 두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싸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충격받아 구불어진 흉기는 그녀의 머리에 부딪혀 빠른 속도로 튕겨났다 / 4, 외투를 입은 누군가 충격을 가하던 위치에 서 있어 힘쓰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